

상인들 눈치보느라...충장로 차량 금지 '유명무실'

수십t급 화물차·배달 오토바이·불법 주정차 횡행...보행자 불편
동구·동부경찰, 현수막 걸고 단속 강화 홍보만...해결의지 있나
상인 합의 오후 4시~밤 10시 '차없는 거리' 전남대 사례와 대조

광주 충장로 일대가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차량 진입이 금지됐는데도 지자체 등의 방관으로 하루 종일 수십대 차량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지적(광주일보 2월 4일 6면)과 관련, 광주시 동구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동구는 광주동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도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단속 강화'라는 원론적 해결책만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가 충장로 상인들의 눈치만 보느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구는 지난 4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동부경찰, 배달플랫폼 등과 함께 충장로 일대 차량 진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충장로 1-5가 구간은 지난 2013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수십t급 원바디 화물차와 배달 오토바이, 탑차 등이 통행 금지 시간에 충장로 곳곳을 통행하고 있고, 더불어 단속·계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는 최근 충장로 일대가 F&B(식음료) 위주 상권으로 변모하면서 물류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증가했고, 지난 1월 배달플랫폼의 소풍물 서비스까지 시작되면서 통행량이 더욱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구와 경찰은 회의 결과 '단속 강화'만 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도중 이동식 불라드를 설치하는 등 차량 통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검토 수준의 논의만 하고 실행 계획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면 충장로 내 상인들이 물류 상·하차를 못한다며 불편을 호소할 것"이라며 "혹시나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 시간이 지체되는 악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충장로를 방문한 광주 시민들은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반응이다. 충장로를 걸다 튀어나온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불편한 점이 한몫이 아닌데, 상인 편의를 핑계로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 시민 고은별(여·24)씨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충장로 일대 단속 강화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허구호'에 그치는 모양새"라며 "행정과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준석(23)씨도 "충장로 진출입로에 차량과 오토바이 등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함께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며 "상인들과 차량 진입 시간대를 재협의해 출입을 통제하면 이용객들의 불편



26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을 줄이고, 상인들도 납득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동구의 대처는 자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상권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는 지난 2017년부터 우치로 90번길·100번

길 등 총 43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상인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동형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닥 안내 디자인을 설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구의 경우 상인들과 협의를 바탕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시간대를 정하고, 시설물을 설

치해 시민들에게도 '차 없는 거리'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심어줘 충장로와 대비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민원과 지적이 잇따르며 따라 차량과 오토바이를 모두 제어하기 위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yoon@

광주회생법원 개원...호남 도산사건 처리 속도

3월 3일 개원식·취임식

호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다음 달 3일 개원식 및 초대 회생법원장 취임식을 연다.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같이 특정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이다.

광주회생법원은 기존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 종합청사에 들어선다. 법원장을 포함해 판사 6명으로 구성돼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역의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 회생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초대 법원장은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판사가 맡기로 했다. 김 판사는 광주석산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회생법원이 생길 경우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성 있는 법관의 심리를 받을 수 있으며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도산사건 전담 판사가 민사사건과 다른 재판부도 겸하고 있어 도산사건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탈에 집계된 '법원통계월보' 자료를 종합하면 광주지법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2023년 1만 60건, 2024년 9699건, 2025년 1만 913건 등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2027년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서 개최

2027년 '남도영화제 시즌3'는 장흥에서 열린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흥을 2027년 남도영화제 시즌 3 개최지로 선정하고 '남도영화제 시즌3' 추진 방향과 2026년 프레(Pre) 행사 계획 등을 소개했다.

국내 유일 지역 순회형 영화제인 남도영화제는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특색과 스토리를 영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남도형 로컬 영화제'로 꼽힌다. 순천(2023년)을 시작으로 광양(시즌 2·2025년)에 이어 장흥에서 지역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남도영화제는 전국 최초 문화관광기획특구인 지

역적 특성을 기획 과정에 담아내면서 옛 장흥고도소(빠빠용ZIP)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장흥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화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본 행사(2027년)에 앞서 열리는 2026년 프레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과 영화인을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흥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남도영화제 시즌3 및 프레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은 공식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구감소지역 방문엔

여행경비 50% 환급

문체부, 고흥·완도 등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 사업에 전남 6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 지출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른바 '반값여행'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2인 이상 2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고흥·강진·해남·영암·영광·완도군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국비 3억 원과 지방비 7억 원을 매칭해 1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자체들은 4월부터 '반값여행상품'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섬·해양 특화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전남 지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양선 국궁·영암선 게이트볼

어르신 스포츠강좌 지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지로 광양시와 영암·강진·보성·진도군 등 전남 5개 시·군이 선정됐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스포츠강좌에 참여토록 건강 증진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시·군에는 모두 4억 3000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광양시는 국궁과 댄스스포츠 강좌 및 워킹숍을 진행하고 영암에서는 체조·탁구·볼링·게이트볼 강좌를 운영한다.

강진군은 파크골프 강좌와 지도자 과정을 열고 보성·진도군은 생활제조, 수영, 시니어축구, 배드민턴 강좌를 연다.

전남도는 단순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교류전·페스티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wangju.co.kr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2026 KWANGJUILBO LEADERS ACADEMY

광주일보 74